

“축제 현장 일회용품 줄여 환경 보호 공감대 키우겠다”

2026

새해 희망 키워드 <4>공감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아무리 커져도, 현장에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광주 대표 축제 현장 등 일회용품이 많이 쓰이는 곳에서부터 ‘감량 컨설팅’을 개시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기후위기·탈핵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 펼치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올해를 광주 곳곳의 ‘현장’이 변화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는 올해도 공공행사·축제 일회용품 문제로 대표 의제로 다루고 기후·에너지(탈핵) 대응 전면에 도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더 많은 녹색 파수꾼들과의 연대로 지구 지키는 ‘에코 벨트’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정 국장은 탈플라스틱, 금호타이어 화학물질 화재 사고 피해, 하남산단 지하수오염문제 등 환경 이슈에서 앞장서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왔다. 대학교에서 지구환경과학을 전공하던 지난 2014년 당시 환경운동연합에 입사해 12년째 환경 운동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 분야에서 자원순환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정 국장은 극한 기후가 잇따르는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법·제도로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를 대응하면서 한계를 크게 느꼈다고 한다. 지자체가 법적·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제도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모니터링, 건강영향조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 대응 과정은 어떻게든 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인식을

금타 화재·지하수 오염문제 등 환경 이슈 적극 알리고 대변 기후·에너지·탈핵 대응 전면에 녹색 파수꾼과 ‘에코 벨트’ 구축 광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기대 ‘기후 취약계층’ 권리 향상 최선

지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정 국장은 화재 이후 광주시에 “피해 접수 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지 못해 피해 현황 파악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화학 사고’가 아니라 ‘단순 화재’로 분류되면서 정보 요구권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추후 같은 사고가 반복됐을 때 환경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만들 수 없었다.

산업단지 지하수 오염 문제에서도 한계점이 느껴졌다. 하남산단·본촌산단 일대에선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광주시가 TF를 운영하면서도 막상 뾰족한 해결 방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운석열 정부 때 일회용품 규제가 다수 유예되거나 사실상 무효화된 점, 광주시 대표 축제에서 대화용기 대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점 등 기본적인 환경오염 문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정 국장은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운영 구조를 바꾸며 변화를 이끌고, 기후 재난을 예방하는 체계가 작동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부터 광주 첫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기대를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조직국장을 7일 광주시 동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앞에서 만났다. 정 국장은 12년째 지역이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걸고 있다. 센터가 생기면 환경오염 취약지역 모니터링, 건강영향조사 등 역할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환경보호 방안이나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자치구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대화용기 시스템에 대해 효율성을 따져 광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안을 설계, 각 자치구에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장축제 등 광주시 대표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일회용품감량 컨설팅을 거쳐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탈핵’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해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설계수명 만료로 멈춘 상황인데, 정부와 한수원은 수명 연장 절차를 준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다. 광주 지역 10여명의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5일부터 원전을 반대하는 전국 도보 행진을 시작해 8일 광주시청 앞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청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정 국장은 “한빛 2호기 설계수명도 오는 9월 만료 예정이라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영광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다. 수명 연장, 후쿠시마 오염수,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핵심 이슈를 시민 눈높이로 쉽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국장은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권리를 향상시키는 일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정 국장은 “폭염·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데, 정작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이들이 피해를 더 받고 있는 현실이다”며 “기후 권리 계층의 권리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환경정책을 짤 때 기후 권리 계층의 권리가 빠지지 않게 만드는 논의를 열어보고 싶다. 이에 맞춰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끝>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ja@kwangju.co.kr

설 기차표 15일 예매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기차표 예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예매 대상은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으로, 전차(교통 약자 대상)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예매는 코레일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능하다.

오는 15-1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매가 진행된다.

15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충부내륙·경북선, 16일은 호남·전라·서해·목포보성·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이 대상이다.

19-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일반 예매가 열린다.

19일은 호남·전라·장항·중앙·서해·목포보성선, 20일에는 경전·경북·대구·충북·충부내륙·동해·강릉·영동·태백·경춘 교외선, 21일은 경부선 승차권을 대상으로 한다.

결제는 오는 22일 새벽 0시부터 가능하며 교통약자 사전예매로 예약한 표의 경우 28일, 일반예매는 25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한편, SR이 운영하는 고속열차 SRT의 설 승차권 예매 일정은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출근길 추위 기승

오늘 아침 영하 5도 안팎

8일부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출근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7일 예보했다.

8일 아침기온은 전날보다 3-7도 가량 떨어져 영하5도 안팎에 머물렀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영하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보이고,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6-영하2도, 낮 최고기온은 7-10도가 예상된다.

주말인 10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1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난로와 전기장판 기기를 사용할 때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잇따라

전남 여성단체·출향민 등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전남지역 여성단체와 출향민 등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전남여성정책포럼과 공동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환영한다”며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공동운명체임을 재확인하고,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비전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출향민들로 구성된 광주전남시도민회도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지역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이라며 “광주·전남의 공동선언 발표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을 통해 AI·에너지 시대 광주전남이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광주전남이 먼저 지방 주도의 성장전략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도 “역사적인 320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가도록 1300만 향우의 단합된 의지로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아프면 안되겠네…1인 평생 의료비 2억5000만원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생·연령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2억 465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지난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이 연령이 78세(약 446만원)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지출액 자체도 2.6배나 급증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개인이 생애에서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기대수명이 늘어난 폭 이상으로 뒤로 밀리며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 1474만원으로 남성(1억8263만원)보다 약 3211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의 약 117.7%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수명이 긴 만큼 의료 서비스 이용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난 결과다.

또 30세에 앞서 결릴 경우 사망할 때까지 암 치료로만 평균 1억 1142만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